

◆ 북미

- 2007년 북미지역 생명보험산업 5.8% 성장, 손해보험산업은 성장 둔화
- 미국 보험사 고객 서비스 만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 유럽

- Swiss Re, 2007 유럽전체 보험시장은 전년대비 3.4% 성장

◆ 일본

- 손해보험회사 자체 조사에서 보험료 과당 징수 사례 밝혀져
- 대형 생보사들 총회에서 주식회사 전환에 주목

◆ 중국

- 서울보증보험 중국 대표처 설립
- 지진피해지역 복구프로젝트에 보험회사 자금 우선 투입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

□ 2007년 북미지역 생명보험산업 5.8% 성장, 손해보험산업은 성장 둔화

- o Swiss Re가 최근 발표한 2007년 세계보험시장(World insurance in 2007)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북미지역 생명보험산업은 미국과 캐나다 시장의 이례적 급성장에 의해 5.8%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

- 이와 같은 높은 성장률은 퇴직과 상속(Estate planning)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해 저축-보장 결합형 상품과 연금상품의 판매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및 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생활급부(Living Benefit)*를 제공하는 변액연금 상품 또는 단체 연금 상품과 같이 일정한 보증(guarantee)이 약속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으며, 생명보험 정산거래(Life settlement)**확대의 영향으로 노인들의 생명보험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됨.

* 생활급부는 가입자가 불치병에 걸렸을 때 특약 조건에 따라 생전에 미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함.

** 생명보험 정산거래란 투자자가 생명보험계약을 매입한 후 향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 주는 대신 피보험자 사망 시 당해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권리를 득하는 계약을 말함.

- o 특히 캐나다의 2007년 생명보험 산업 성장률은 GDP 성장률의 4배에 달하는 11%를 기록하였음.

-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상품과 저축-보장 결합형 상품의 판매 증가에 따라 신사업분야에서의 성장률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주가연계상품의 판매 추세는 계속 이어짐.

- 북미 지역 보험사들의 수익성은 2006년에 비해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o 2008년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과 금융시장에 만연한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보험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자본성장(capital growth)이 둔화될 것으로 보임.

- 2007년 북미지역 손해보험산업 원수보험료(direct premium)는 2006년 1.8%보다 낮은 1.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미국시장에서의 성장을 감소(-1.3%)에 의한 것임.
- 2007년 미국 손해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재산보험과 해상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감소하였으며, 순이익은 7% 하락하였음.
- 보험영업이익(underwriting result)도 감소하였으나 기업보험(commercial line) 등 특정 부문에서는 여전히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은 준비금이 완화된 때문임.
- 또한 낮은 자연재해 손실로 인해 합산비율은 2006년 95%보다 소폭 감소한 93%를 나타냄.
- 북미 시장의 8%를 차지하고 있는 캐나다 손해보험시장은 미국과 달리 2.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비중이 가장 큰 자동차 보험을 제외한 재산보험 부문 등에서의 보험료 인상에 기인한 것임.
- 캐나다 손해보험산업의 합산비율은 2006년 89%에서 소폭 악화된 92%를 나타냈으며, 순이익은 15% 감소함.
- 2008년에도 북미지역 손해보험 시장의 수입보험료 성장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부문별로는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표 1> 미국, 캐나다의 2007년 보험산업 지표

		세계순위	수입보험료 (백만달러)	시장점유율 (%)	보험밀도 (달러)	침투율 (%)
미국	생명보험	1	578,357	24.17	1,922.0	4.2
	손해보험	1	651,311	39.05	2,164.4	4.7
	계	1	1,229,668	30.28	4,086.5	8.9
캐나다	생명보험	12	45,593	1.91	1,386.8	3.2
	손해보험	7	54,805	3.29	1,667.0	3.8
	계	9	100,398	2.47	3,053.8	7.0

(Swiss Re Sigma, 7/2)

□ 미국 보험사 고객 서비스 만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 미국 컨설팅 업체인 CFI 그룹에 의해 실시된 각 산업별 콜센터 상담 만족도 조사에서 보험회사 콜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번 조사는 은행, 보험, 정부기관, 핸드폰, 호텔 등 8개 산업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보험산업 콜센터에 대한 만족도는 작년에 비해 10% 상승한 75점을 나타내며 3위를 기록함.
- 그러나 이러한 만족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17%의 보험사 고객들은 콜센터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콜센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고객들이 그렇지 않은 고객들에 비해 거래 보험사를 바꿀 가능성이 4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콜센터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고객들의 만족도는 그렇지 않은 경우의 절반에 그침.
- 보험사의 고객 서비스 직원에 대한 만족도는 80점으로 소매업종(81점)에 이어 2위를 기록함.
- 많은 사람들이 콜센터에 전화하기 전에 웹사이트 등 다른 채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 고객 서비스 직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그러나 콜센터에 전화하기 전에 웹사이트와 같은 다른 방법들을 시도해본 고객들의 만족도는 64점으로, 콜센터에 바로 연락을 취한 고객들의 만족도(7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첫 번째 전화통화에서 문제를 해결한 고객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의 고객에 비해 그 회사와 거래를 계속할 확률이 49%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 CFI의 CEO는 “고객 서비스 직원들이 고객들과 회사의 관계에서 최 일선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Insurance Journal, 7/1)

【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

□ Swiss Re, 2007 유럽의 전체 보험시장은 전년대비 3.4% 성장

- Swiss Re에 따르면, 2007년 세계 전체보험시장은 신흥시장의 성장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3.3% 성장하였으며, 생명보험 시장의 성장률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5.4% 상승하였으나, 손해보험에서는 전년대비 0.7%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선진국(G7, EU를 비롯한 27개국)의 2007 보험시장은 손해보험 시장이 전년대비 -0.3%의 마이너스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이 4.7% 성장률을 시현함에 따라 전체 시장은 2.5%의 성장률을 기록함.
- 반면, 신흥국의 보험시장에서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시장이 전년대비 각각 13.1%, 10.2%의 두 자리수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 전체보험시장에 성장 및 수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 2007 서유럽의 전체 생명보험시장은 전년대비 1.1%p 감소한 5.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영국(23%)과 아일랜드(14%)를 중심으로 한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14%)와 프랑스(-4%)의 보험시장 침체에 따른 것임.
- 서유럽의 생명보험 상품과 관련해서는 변액보험(unit-linked) 및 단생보험(single premium)을 중심으로 판매가 지속되고 있으며, 개인 및 단체 연금 시장의 중요성도 점차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서유럽의 전체 손해보험시장은 지난해 네덜란드의 공영 건강보험이 민영화*됨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두 배로 확대되는 높은 성장세(5.8%)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2007년에는 수입보험료가 소폭 감소되고 영업이익이 1/3로 축소됨에 따라 -0.2%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되었음.

* 2006년 1월에 도입된 네덜란드 '신건강보험제도'는 시장경쟁체제를 골자로 견고한 사회보장 및 시장역동성을 적절하게 조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기본적인 건강보험 운영은 민간보험회사가 담당하고 신건강보험 규칙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민간보험회사를 통해 정부가 정하는 기본건강보험에 가입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과태료 부과), 보험사를 선택에 제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이는 유럽보험시장의 상위 5개국 가운데 프랑스와 네덜란드만이 소폭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영국과 독일 등의 자동차 요율 하락 및 홍수와 같은 자연 재해로 인해 서유럽의 전체 손해보험시장에 악영향을 끼침.

<유럽의 보험시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수입보험료(생보:손보)		성장률	시장 점유율	보험 침투도	보험 밀도
	2006	2007				
서유럽	1,398,515(62:38)	1,606,324(63:37)	3.0	39.6	8.9	3,138.1
동유럽	56,994(23:77)	74,369(24:76)	12.9	1.8	2.8	228.6
유럽 전체	1,455,509(61:39)	1,680,693(62:38)	3.4	41.4	8.0	1,962.4
선진국	3,342,459(58:42)	3,646,523(60:40)	2.5	89.8	9.1	3,577.2
신흥국	332,433(52:48)	414,347(53:47)	11.8	10.2	2.8	72.8
세계 전체	3,674,892(58:42)	4,060,870(59:41)	3.3	100.0	7.5	607.7

- 2007 중앙 및 동유럽의 생명보험시장은 전년대비 17% 상승하였으며,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두 자리수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07년 중앙유럽에서 변액보험 및 보장성 보험, 추가보장형 상품에서 거수된 수입보험료의 높은 성장(9%-20%)이 전체 실적에 반영된 것임.
- 또한, 동유럽국 가운데 발트 해 연안 제국의 성장률은 34%를 기록하였으며, 남동부 지역의 성장률도 15%로 두 자리수를 기록하였음.
- 반면, 중앙 및 동유럽의 손해보험시장은 전년대비 1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나 발트 해 지역과 남동유럽의 성장률이 각각 24%와 12%를 기록하면서 전체 성장을 견인하였음.
- 중앙유럽만의 경우에는 GDP 성장률보다 낮은 3.7%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코와 헝가리 지역의 자동차보험 및 재물보험의 약세로 인한 성장세 둔화로 성장률은 각각 -0.7%, -3.5%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음.

<2007 유럽 국가별 보험시장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수입보험료		성장률	시장 점유율	보험 침투도	보험 밀도
	순위	2007				
영국	2	463,686	15.3	11.42	15.7	7,113.7
프랑스	4	268,900	-2.9	6.62	10.3	4,147.6
독일	5	222,825	-1.3	5.49	6.6	2,662.1
이탈리아	6	142,328	-8.8	3.50	6.4	2,322.0
네덜란드	8	102,831	1.1	2.53	13.4	6,262.9
스페인	11	74,696	1.2	1.84	5.2	1,699.9
아일랜드	13	60,693	na	1.49	11.6	7,171.4
벨기에	16	45,841	5.9	1.13	9.6	4,131.5
스위스	17	43,580	1.3	1.07	10.3	5,740.7
스웨덴	20	33,646	5.5	0.83	7.4	3,705.1
러시아	21	29,846	16.6	0.73	2.4	209.4
덴마크	22	27,771	7.5	0.68	8.9	5,103.1
오스트리아	24	21,748	-0.3	0.54	5.8	2,620.5
핀란드	25	20,535	-1.4	0.51	8.4	3,905.8
노르웨이	26	19,412	5.6	0.48	4.6	3,770.2
포르투갈	27	19,000	2.3	0.47	8.5	1,775.6
룩셈부르크	29	17,030	-7.2	0.42	3.2	3,423.4
폴란드	30	15,626	13.7	0.38	3.7	411.0
터키	34	8,297	5.1	0.20	1.7	110.8
체코	38	6,419	3.9	0.16	3.7	631.3
그리스	41	6,004	-1.7	0.15	1.9	537.9
리히텐슈타인	43	5,705	0.7	0.14	0.7	835.6
헝가리	44	4,945	5.9	0.12	3.5	491.9
우크라이나	48	3,469	12.3	0.09	2.7	75.1
루마니아	49	2,898	17.7	0.07	1.8	135.2
슬로베니아	50	2,592	6.0	0.06	5.7	1,294.8
슬로바키아	51	2,336	4.7	0.06	3.1	435.4
크로아티아	55	1,689	7.6	0.04	3.3	370.7
불가리아	61	1,064	11.9	0.03	2.7	139.3
키프로스	64	891	na	0.02	4.2	1,042.3
리투아니아	66	771	28.3	0.02	2.0	227.4
세르비아	67	766	8.2	0.02	1.8	103.1
라트비아	77	596	37.9	0.01	2.2	261.8
아이슬랜드	78	563	na	0.01	2.9	1,871.5
에스토니아	81	493	13.1	0.01	2.3	369.3
기타국가		1,200		0.03		
유럽 전체		1,680,693	3.4	41.4	8.0	1,962.4

(Swiss Re Sigma, 7/2)

【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

□ 손해보험회사 자체 조사에서 보험료 과당 징수 사례 밝혀져

- 일본 손해보험회사들이 화재보험 등의 보험료를 과당 징수한 것으로 자체 조사결과가 나타났으며, 과당 징수 규모는 26개사에서 약 153만건, 금액으로는 약 371억엔인 것으로 나타남.
 - 도쿄해상치도(東京海上日動)화재보험은 전 임원의 급여 일부를 반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결정이 나머지 손보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손보사들의 자체 조사결과는 중간보고의 성격으로 향후 피해액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음.
 - 상위 6개 손보사가 발표한 과당 징수 규모는 지난 2008년 5월말 약 130만건, 약 300억엔이었으나 금번 조사결과 건수로는 5만건, 금액으로 10억엔이 증가하였음.
- 조사결과 화재보험(지진보험 포함)의 보험료 과당징수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26사에서 합계 약 75만건, 약 302억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 내연성이 높은 외벽재료의 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목조주택으로 구분해 2배 정도의 보험료를 받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지진보험에서는 1981년 6월 이후 신축건물 대상의 「건축년수 할인」이나, 내진성 사정을 기초로 한 「내진등급 할인」의 적용누락이 눈에 띄었음.
 - 주력상품인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외국계를 제외한 20개사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골드 면허 할인이나 에어백 등 안전장치를 탑재한 자동차 할인적용을 누락하는 등 합계 약 74만건, 약 47억엔의 과당징수가 있었음.
 - 이에 따라 도쿄해상의 사장은 임원 급여의 30%를 3개월간 삭감하고 다른 30명의 임원에게도 책임의 정도에 따라 급여의 반납을 지시하였음.

- 보험료 과당징수 문제는 2005년 2월 후지화재가 금융청의 검사에서 지적을 받아 처음으로 발각된 바 있음.
- 금융청이 2006년 12월 업계의 자체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각 사는 화재보험의 조사 대상을 2005년 4월 이후 계약으로 설정하였으나, 자동차보험 등은 대상 시기가 다양하여 계약자의 40% 만을 조사한 보험종목도 있음.
- 조사결과 보험료를 잘못 산출하여 과당 징수했을 경우 약관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행정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청이 보험업법에 근거한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음.

일본 주요 손보사 보험료 과당 징수 건수 및 규모

회사명	건수	금액
토쿄해상니치도(東京海上日動)	50.5만건	124억엔
미츠이스미토모(三井住友)해상	27.4만건	59억엔
손해보험제팬	24.6만건	47억엔
아이오이손보	14.7만건	35억엔
니혼쿄아(日本興亞)손보	13.5만건	30억엔
닛세이도화(日生同和)손보	5.3만건	12억엔

주1) 건수는 화재보험 + 기타 보험종목을 포함

주2) 2008년 6월말(토쿄해상은 5월말) 기준임.

(아사히신문, 7/4)

□ 대형 생보사들 총회에서 주식회사 전환에 주목

- 상호회사 형식을 취하고 있는 니혼(日本)생명보험 등 대형 생명보험 6사는 1일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해당하는 대표회의를 동시에 개최함.
- 올해 대표회의에서는 보험금 지급 부당 누락 문제에 관한 질문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다이이치(第一)생명보험이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질문이 크게 늘었음.
- 2010년 상반기까지 주식회사로 전환할 계획을 밝힌 다이이치생명은 도쿄에서 대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대표회의에서 나온 37개 질문 중 20개가 “계약자에 있어서 주식회사화의 장점은?” 등의 주식회사 전환에 관한 질문이었음.
- 다이이치생명의 사카이 사장은 “국내 보험시장은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계약자에게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경영을 할 수 있는 주식회사 전환을 결정했다”라고 말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구했음.
- 한편, 주식회사 전환을 부정하고 있는 생명보험사의 대표회의에서도 주식회사 전환을 묻는 질문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 스미토모생명에서는 주식회사 전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사토 사장이 “대규모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단점이 있지만 이를 상회하는 효과가 예상되면 본격적으로 검토 할 것”이라며 미래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였음.

(산케이신문, 7/2)

【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

□ 서울보증보험 중국 대표처 설립

- 서울보증보험은 6월 26일 보감위의 내인가를 얻어 설립준비에 들어간 지 2개월 만에 베이징(北京) 캄핀스키호텔에서 대표처 개소식을 열었음.
- 이번 개소식 연설에서 방영중사장은 당사의 대표처 설립은 해외보증보험 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중국 내 기업들과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중국 보증보험 제도의 발전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 이에 대해 중국 재보험(그룹) 팡지잉(龐繼英) 부총재는 환영사를 통해 보증보험 업계에서 선진경험을 갖춘 서울보증보험이 기존 경험을 이용하여 중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중국 보증보험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함.
- 중국 보증보험 산업은 상대적으로 늦게 출발하여 아직 초기발전 단계에 놓여 있으며,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지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운영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시장경쟁에서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능력과 신용대출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이 전무한 상태여서 보증보험회사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1969년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은 양호한 신용대출능력을 보유함으로써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까지 보증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 국내에서는 중소기업의 신용등급, 은행대출의 리스크분담 등으로 기업의 융자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북경상보, 6/30)

□ 지진피해지역 복구프로젝트에 보험회사 자금 우선 투입

- 중국 쓰촨성(四川省) 원촨(汶川)지역 대지진으로 실종/사망 87,000여명, 부상 374,000여 명에 재산피해가 최대 5,000억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음.
- 지진발생 후 2개월이 지난 지금의 중국은 모든 언론매체를 동원하여 재건을 통해 슬픔을 딛고 일어서자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
- 보험업계의 움직임은 지진발생 초기부터 여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선에서 구조지원과 함께 보험금 지급업무를 진행하는가 하면, 대외적으로 지진구호성금 모금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 왔음.
- 이와 같은 노력은 국무원의 보험업계 지원으로 이어져 국무원은 <원촨지진복구재건 정책조치에 대한 의견>을 발표, 보험회사 자금을 우선적으로 피해지역에 투입하여 민생관련 중대 건설공사나 사회기초시설 재건사업에 보험업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임.
- 위 <의견>에 의하면, 국무원이 피해지역 재건에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각사가 보유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사회전반에 대한 지원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해석됨.
-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는 재해지역 주민들과 단체에 대한 각종 보험상품을 지원하는 데 있어 보험료 할인, 각종 우대혜택 부여 등으로 피해지역을 지원하는 한편, 공공시설, 도로복구, 긴급시설 등 장기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보험회사 자산을 우선 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고 전함.

(제일재경일보, 7/2)

【 Financial Key Indicators 】

구분		07년말	08.6.30(금)	08.7.4(금)	전주대비
금리 (%)	韓 국고채(3년)	5.74	5.77	6.05	0.28
	美 10년국채	4.03	3.98	3.97*	-0.01
	英 10년국채	4.51	4.98	4.96	-0.02
	日 10년국채	1.51	1.62	1.65	0.03
주가	韓 KOSPI	1,897.13	1,684.45	1,577.94	-6.32%
	韓 KOSDAQ	704.23	594.63	538.30	-9.47%
	美 DJIA	13,264.82	11,346.51	11,288.54*	-0.51%
	美 Nasdaq	2,652.28	2,315.63	2,245.38*	-3.03%
	英 FTSE100	6,456.90	5,529.90	5,412.80	-2.12%
	獨 DAX30	8,067.32	6,421.91	6,272.21	-2.33%
	佛 CAC40	5,614.08	4,397.32	4,266.00	-2.99%
	日 Nikkei225	15,307.78	13,544.36	13,237.89	-2.26%
	中 상해종합	5,261.56	2,748.43	2,669.89	-2.86%
	대만 가권	8,506.28	7,548.76	7,228.41	-4.24%
	홍콩 항셱	27,812.65	22,042.35	21,423.82	-2.81%
환율	원/달러	938.2	1,042.00	1,050.30	8.30
	원/100엔	833.33	967.56	972.22	4.66
	엔/달러	112.58	106.21	106.65	0.44
	달러/유로	1.4722	1.5752	1.5689	-0.01
	위안/달러	7.3041	6.8615	6.8510	-0.01

주) *는 7월 3일 기준임.